

# 신년사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장 나 석 주

안녕하세요?

2008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니,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주간 히말라야를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겨울에는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나곤 했었는데, 이번이 4번째로 올해에는 둘째 아이와 함께 에베레스트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네팔의 여러 지역, 특히 카트만두의 대표적인 상가가 있는 타멜 지역이나 포카라의 lake side 지역과 같은 곳은 매우 친숙하게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트레킹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시작은 인천에서 비행기로 카트만두로 가는데, 작년부터는 국내항공사의 직항로가 생겨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히말라야로 향하던 2004년도에는 상해에서 로알네팔 항공편으로 갈아타고 갔었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비행의 불안함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 여행이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또한 카트만두에 처음 내렸을 때 보게 되는 광경도 사전에 여행기를 읽고서 머릿속에 만들어 둔 예상을 너무나 뛰어넘는 지라 정신적인 쇼크도 대단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스스로의 체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레스트 트레킹의 경우는 다시 카트만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해발 2850m에 있는 루크라로 가야하는데, 이 비행 또한 안개 등 날씨여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까지는 항상 초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루크라부터는 약 10여일을 걸어 다니게 되는데, 그 최종 목표는 일반적으로 해발 5545m에 있는 칼라파타르라는 산으로서 쾌청한 날씨에는 에베레스트정상을 포함한 멋진 광경을 트레커들에게 선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산 밑에 도착하였던 1월 18일 오전에는 고산지대에 눈보라가 치고 있어 유감스럽게도 목표를 접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갔었는데, 거의 1주일을 세수, 면도, 샤워 등의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올라갔었지만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히말라야에서의 규칙입니다.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큰 힘이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한 끈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처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학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지난 총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면 앞으로 10여년 후에 우리나라 용접접합분야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은 IIW, AWF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우리 학회의 실질적인 국제화, 학회지의 내용과 수준향상을 통한 위상정립, 특별회원사와 일반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회조직의 내실화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학회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이번에 완수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연도에 또 추진할 수 있는 끈기와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목표가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생산적인 한 해를 만들고, 학회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8년 1월